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

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

최지은 (미추홀학산문화원)

몇 년 전 친구는 궁금해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 .

“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?”

내가 뭐라고 답했을까 . 집에 가는 내내 그 질문을 곱씹었던 것만 생각난다 .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도 스스로 정의하기가 어려웠다 . 그저 ‘공연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일이라면 뭐든 좋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.

그렇게 막연히 ‘공연’의 길만 걸어온 나에게 미추홀학산문화원은 ‘문화’라는 넓은 길을 안내해준 길잡이였다 . 공연만이 아닌 문화의 길에 발을 내딛는 업무가 주어진 것이다 .

인천광역시 2021년 유휴시설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<학산시민문화마당>은 나의 첫 디딤돌이다 . ‘나와 이웃 , 그리고 우리 동네’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학산문화원의 공간에서 판화 , 인형 , 필름카메라 , 그림 등 시각특화예술 수업을 진행한다 . 나를 돌아보고 주변 이웃과 관계 맺으며 사라져가는 우리 동네를 기록하는 이 시간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만 머물러있지 않는다는 게 참 좋았다 .

2021년 유휴시설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<학산시민문화마당>

일상에서 쉽게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, 이를 통해 나와 이웃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다 . 평소 같으면 쉽게 지나쳤을 대문이 예쁜 집 , 잎이 큰 나무 , 가파른 언덕 , 좁지만 매력 있는 골목길 등 우리 동네를 관심의 눈으로 보니 빠르게 걷던 발걸음을 멈춰 바라보게 된다 .

그다음 디딤돌은 2021 미추홀구온마을학교 사업인 <으라차차 ! 수봉산탐험대>이다 . 미추홀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추홀구의 중심인 수봉산의 역사 , 문화 , 자연을 체험시켜주며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동네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만들어 주게끔 도와준다 .

2021 미추홀구온마을학교 <으라차차! 수봉산탐험대>

‘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.’라는 말처럼 수업을 준비하는 6명의 시민강사, 운영하는 문화원, 지원해주는 미추홀구까지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힘쓰고 있다.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바라보자면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올라온다.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기를,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았을 때 기억의 조각 중, 이 수업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.

사실, 이 디딤돌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는 것뿐이다. 하지만, 이 걸음들이 헛되지 않다고 장담한다. 나 홀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닌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선배와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동료와 그 뒤를 따라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. 이 모든 걸음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.

어느 순간 ‘공연’에 빠져들어 이 길을 선택했고 깊은 생각 없이 걸어가니 ‘문화’에 도착했다. 나는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공연문화팀에서 지역문화팀으로 옮기게 됐다. 지역문화에 더 힘쓰라는 신의 뜻이라 생각이 든다.

무엇보다 미추홀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토박이로서 미추홀구를 향한 애정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. '일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일하게 하라'는 말처럼 내 안에 피어나는 애정으로 미추홀구를 위해 일하려 한다. 물론 나의 노력이 큰 영향을 불러오긴 어렵다는 것을 안다. 하지만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내다 보면 조금 늦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새싹이 돋아날 것이라 믿는다.

이제는 몇 년 전 친구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.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.

사진제공: 미추홀학산문화원

최지은(崔智恩, **Choi Ji Eun**)

미추홀학산문화원 지역문화팀 사원

전) 한국연극협회 사원